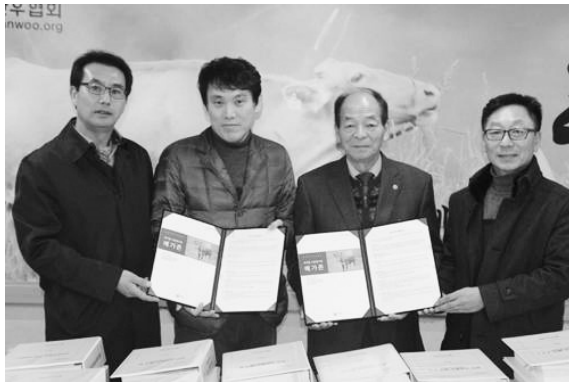


한우

한우협-애닉스, 사료첨가제 공동구매 업무협약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가 사료첨가제 공동구매를 위해 애닉스주식회사(대표 이주환, 이하 애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지난 1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사료첨가제 공동구매 업무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애닉스 대표 품목인 ‘메가존 축우용’과 ‘메가존E’를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된다. ‘메가존 축우용’과 ‘메가존E’는 체중증가, 육질개선, 약취제

거 및 면역력증가에 큰 효능이 있어 농장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애닉스는 협회 소속 도지회, 시군지부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협회 중앙회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품질 등을 관리한다. 이강우 회장은 “한우농가들이 농장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료첨가제를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애닉스 이주환 대표에게 “앞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진행하여 우수한 제품을 공급해 한우농가와 함께 동반성장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주환 대표는 “품질과 효능을 바탕으로 한 한우농가들의 입소문으로 성장한 만큼 제품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회원 농가 비용절감,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구매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4. 02. 06]

한돈

탤런트 이서진, 한돈자조금 홍보대사 위촉

‘꽃보다 할배’라는 케이블TV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집꾼’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탤런트 이



서진 씨가 국산돼지고기 한돈 홍보에 앞장선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지난 2월 13일 이서진씨를 ‘한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서진씨는 이에 따라 한돈자조금 광고촬영을 시작으로 한돈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하면서 ‘한돈 지킴이’로 활동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2월 17일부터 공개된 광고 촬영에서 이서진 씨는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 받는 대표 축산물이자 국내 먹거리 주권을 지키고 있는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신뢰감 있는 모델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서진씨는 “평소 즐겨 먹는 한돈의 영양학적 우수성 등을 새로이 알게 됐다”면서 “한돈이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는 ‘밥상 위의 국가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관리위 이병규 위원장은 “올해 위촉된 한돈 홍보대사가 자부심을 갖고 국민들이 한돈을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는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 국산 돼지고기 한돈이 함께하여 즐거움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돈자조금관리위는 한돈 홍보대사 이서진씨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KBS 2TV ‘참 좋은 시절(2월 22일 첫 방송)’의 방송제작 협찬 및 후원을 통해 통합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계

계육협회, 닭고기 홍보 전력 “소치올림픽, 소치(소주+치킨)를 즐기자”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가 소치올림픽에 맞춰 방송을 통해 ‘소치마케팅’을 진행했다. 계육협회는 지난 2월 15일 소치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직전에 편성된 SBS 스타킹 방송에 태극전사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가수 Miss A의 닭고기 캠페인송을 송출했다. 이어 일요일 오전 8시 10분에 방영되는 SBS 도전천국 프로그램에도 같은 캠페인송을 송출하면서 홍보를 이어갔다. 닭고기 캠페인송은 2월 22일과 23일 방송에서도 송출되었다. 또한 시청률 20%에 육박하는



KBS 개그콘서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소치 올림픽에 관련된 닭고기 이슈를 파급했다. 계육협회는 ‘소치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소치(소주+치킨)’ 문화를 각종 방송 언론에 전달 및 요청한 결과 2월 16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에서 소치올림픽을 주제로 소주와 치킨이 언급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이 즐겨보는 오락 프로그램 개그콘서트를 통해 소치올림픽의 열기를 한층 더해줄 수 있는 소치(소주+치킨) 문화를 유쾌한 웃음을 주는 개그요소로 가미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AI로 인해 닭고기의 잘못된 정보 및 오해를 해소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은 “이번 방송을 계기로 소비자가 친근하게 인식하고 있는 치킨과 맥주 문화에 이은 소치문화(소주와 치킨을 함께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첫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다 많은 닭고기의 소비촉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은 “이번 방송을 계기로 소비자가 친근하게 인식하고 있는 치킨과 맥주 문화에 이은 소치문화(소주와 치킨을 함께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첫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다 많은 닭고기의 소비촉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4. 02. 19]

낙농
유우

낙육협, 올 첫 이사회 개최...사업결산 · 안건 의결

한국낙농유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2월 11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사업결산, 2014년도 사업예산, 낙농정책연구소 사업계획 인준, 정기총회 개최, 유공표창자 선정, 대의원 선출방안, 정관개정 등 총 7개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협회는 올해 낙농제도개선, 원유가격연동제 정착, 목장경영 안정 및 우유수급 대책 마련, 우유소비 기반 확대, 육우산업 안정화, 낙농환경 대책 마련 등의 과제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입 유제품을 국산원료로 대체하기 위한 ‘국산우유 인증사업’을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지회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협회의 지역별 활동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출범 3년차를 맞은 낙농정책연구소에서는 낙농경영안정을 위한 원유가격 연동제 정착,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방안 마련,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낙농 이슈 및 단기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손정렬 회장은 “협회는 지난해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으로 일해 왔다. 앞으로도 항상 먼저 움직이는 진정한 생산자 단체의 모습으로 일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초등국정교과서 축산업 왜곡에 대한 대응, 가축공제 문제, 협회 회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축산신문 [2014. 02. 17]

양봉

대전시, 도시양봉장 8곳으로 대폭 확대



대전시가 친환경 양봉산업 활성화와 ‘2015년도 대전 세계양봉대회’ 홍보를 위해 도시양봉 사업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시는 시청사 옥상 하늘양봉장에 벌통 5군을 시범 설치하고 165kg의 벌꿀을 생산해 불우이웃 돕기 기부, 홍보를 위한 시식 등에 활용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은 얻었다. 이를 계기로 시는 시청사 1개소에서 올해는 오-월드, KAIST 등 8개소로

도시 양봉장을 확대 설치해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봉장에는 꿀벌 관련 계시물 설치와 함께 방문 시민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2015년도 세계양봉대회 및 꿀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벌통을 대여해 양봉 교육을 받고 직접 사육·체험하는 동시에 벌통에서 생산된 벌꿀 전량을 시민이 가져가는 방식의 ‘시민분양 체험양봉장’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분양 체험양봉장에는 양봉관련 교육과 꿀벌 관리를 위해 (사)한국양봉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전문가가 운영하게 된다. 2월 17일부터 100명(1군/1인, 총100군)의 대상자를 선착순 접수 받아 신청자와 양봉협회와의 계약 체결 후 총 대여비용 28만5천원 중 시 보조금 9만5천원을 제외한 19만원을 납부한 시민을 최종 선정해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안내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유통과(☎042-270-3764)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충청매일 [2014. 02. 16]